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참된 예배, 잘 드러지고 있습니까?

예배시작 10분 전에 참석하여 묵상하며 예배 준비해야
호출기나 핸드폰은 꺼놓고, 아기들은 탁아부에 맡기는 배려도 필요
묵도부터 송영까지가 예배시간, 사회자의 폐회선언 후 나가야 온전한 예배

우리 교회 5대 목표 중 첫번째는 '신령한 예배'이다. 오래 전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주요 목회지침으로 삼고 이에 대한 첫번째 실천사항으로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입장하여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할 것을 강조해 오고 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들어켜볼 때 이를 꽤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더 신경쓰고 생각할 일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

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10분 전에 입장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 예배 시작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핸드폰이나 호출기를 꺼놓는 일이다. 얼마전 법정이나 엄숙해야 할 공공장소에서 호출기나 핸드폰이 울려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진행에 방해가 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만왕

진행되는 중에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성경, 찬송, 주보 챙기는 소리가 시끄러운데 이것도 시정되어야 하겠다. 예배는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할 때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헌금은 가정에서 미리 준비해 오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된다. 아기들은 탁아부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배려도 아끼지 말기를 기대한다. 옆의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예배를 준비하고 드러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강조한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친다. 예배가 더욱 잘 드러짐으로써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개인과 가정과 부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신앙의 위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 같은 간증은 참된 예배를 드러내면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의 신앙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예배의 양태가 삶의 양태를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회개하고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 생활 전반에 활력을 되찾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크게 성숙한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열심히 찾고 계신다(요 4:23). 우리들도 참된 예배를 드러려는 열심을 가지므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서 우

리들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와 은총을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겠다.

이달의 행사

3.4~6	교역자 수련회
3.6	3월 정기당회
3.9	성경연구원 개강예배
3.10	제1차 성찬식
3.11~12	청년2부 겨울수련회
3.17	제직회
3.31	종려주일

청년2부 겨울수련회

교회학교 청년2부에서는 제6회 겨울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며 청년2부 모든 회원들과 청년2부에 해당하는 성도들, 또한 은혜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한편 청년2부 지도인 김정우 목사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독일에서 학문을 연구하게 되어 3개월간 기독교신학 신약학 교수인 김경진 교수가 청년2부 집회시장을 맡게 되었다.

· 일시: 96.3.11(월)~3.12(화)

(18:00 ~ 21:00)

· 장소: 갈릴리홀 및 만나홀

· 주재: 제자도와 청지기직

· 감사: 김경진 목사(기독교신학 교수)



도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예배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예배란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헌신)이 중요하고, 이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에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한다. 차임벨이 울릴 때는 이미 그 예배의 예배위원(설교자, 사회자, 대표기도자,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예배위원, 음향실 봉사자, 차량관리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내고, 성경본문과 교육문, 찬송가를 미리 찾아두고 모든 순서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은혜되기를 간절히 기

의 왕, 만유의 주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어떠한 하겠는가? 예배시간에는 이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정성껏 예배에 임할 때 신령하고 참된 예배는 더 빨리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착이 될 것이다.

예배는 순서 순서가 의미있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처음 묵도에서 마지막 축도와 송영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예 중에 어느 순서도 아무런 의미없이 들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과 온 회중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만 듣고 찬송하는 시간에, 또는 축도라는 시간에 바쁘게 나가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경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설교 후 찬송이 끝나면 축도가

'96 성경연구원 전반기 성경공부

3월 9일(토)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개강예배
한 성도가 한 강좌 이상씩 꼭 수강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시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목양일념으로 충성하시는-목회자님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충현교회 한국교회성장연구원에서 실시해온 전국목회자세미나에 편한편에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래를 말씀은 1996년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전국목회자세미나가 교회 사정상 후반기에 실시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후반기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그대에 가서 교계 신문광고와 세신을 통해 다시 연락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회자님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6. 2.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한국교회성장연구원 드림
대표전화 552-8200(교 504)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2일(토) 정오부터 3월 7일(목) 정오까지 제3교구,
3월 7일(목) 정오부터 3월 12일(화) 정오까지 제4교구가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시 15:1-5)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 환경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무엘상 6장의 환경에서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경건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세상에서 천국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라고 묻습니다(1절).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교회생활을 말합니다. 교회생활을 바로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자신에 대해 충실한 자입니다

(1)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15:2)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자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입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형편을 한 번 조사해 보아 잘한 일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조심하며 더욱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못한 일은 우물쭈물하며 핑계하지 말고 회개하며 정리하고, 여생을 바로 살기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설계하며 실력을 키우면서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나그네길에 부딪히는 세 가지 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① 길을 가는 방향입니다.

즉 천국을 향해 가는가 지옥을 향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걸음이 곧장 가는 것 같아도 500m를 곧게 가는 사람이 없으나 그 위에 선을 일직선으로 그어놓고 그 선 위를 걸어가면 곧장 걸 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정직한 교훈을 따라 가면 정직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② 길을 가는 목적입니다.

그 길을 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갖추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목적이 선하지 못하고 목적이 정해지지도 못하면 갈팡질팡 할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을 향해 갑니다. 성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③ 누구와 같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 밑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누구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같이 가야 합니다. 교만하여 앞서면 악마의 활촉에 거꾸러지고 게을러서 떨어지면 악마의 그물에 포로가 되니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만 따라 부지런히 가야지 낮잠 자서는 안됩니다.

(2) 공의로운 자입니다

"공의를 일삼으며"(15:2)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공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나누어 가질 때에 공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큰 것은 내 주머니 작은 것은 네 주머니, 예쁜 것은 내 주머니 미운 것은 네 주머니,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욕심을 넘어 공의로워야 됩니다. 상과 벌을 줄 때에 공의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상받을 수 있는 일에 힘쓰고 상주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인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3) 진실한 자입니다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15:2)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났을 때에 그 생각을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양심인데 그럴 때에 진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利)가 나는 것을 마음속에 의논할 때에 거짓을 섞지 않고 양심과 의논하면서 진실하게 의논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른 자입니다

(1) 혀로 참소치 않는 자입니다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15:3)라고 했습니다. 혀는 입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입의 관계가 많습니다. 말은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 듣고 효과를 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선한 효과일 때 더욱 말의 값이 있습니다.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꼭 같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자기보다 앞설 경우 '어떻게 하면 저것을 한 번 꿀탕을 먹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세력 좋은 사람에게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혀로 시기하는 말, 남을 허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해 변명해 주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허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다.

(2) 행악지 않는 자입니다

"그 벅에게 행악지 아니하며"(15:3)라고 했습니다. '행악'은 친구에게 악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에 손해를 끼치든지 명예에 손해를 끼치든지 영육간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3) 사회생활을 바로 하는 자입니다

"변리도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15:5)라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돈거래가 제일 큰 문제인데 돈거래에 고리대금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 밑에서 자라난 곡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누구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여 앞서면 악마의 활촉에 거꾸러지고 게을러서 떨어지면 악마의 그물에 포로가 되니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만 따라 부지런히 가야지 낮잠 자면서는 안됩니다.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어야 내 주머니만 채우면 안 됩니다. "뇌물을 받고"라고 했는데 판사가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고, 중인이 돈 얻어먹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다 잘못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양심의 등불이 꺼지고 양심의 등불이 꺼지면 자기의 길을 모르고 나라를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의인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것은 꼭 막히고 뇌물주는 사람의 말만 듣는 귀가 있습니다.

3.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 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15:4)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러러 보고 볼 줄을 시기를 간구하는 애원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러러 보고 모자라는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망령된 자'는 인간적으로 지식이 많은 박사나 돈이 많은 부자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탄 사람을 업신여기고, 오만하여 하나님까지 업신여기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방해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망령된 사람은 인간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세력이 아무리 높은 장관이라도 사람의 가족을 썼을 뿐 짐승만도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력이 있다고 무서워 떨지 말고 망령된 자는 양심의 등불도 꺼진 마귀의 줄도로 알고 붙잡히여기고 한심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세계를 다스리는 국부총리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인간의 가족을 쓴 마귀의 줄도야' 하고 멸시하며 에스더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동안 금식한 다음에 싸움을 걸어서 이틀만에 하만을 이긴 모르드개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를 존대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공해도 무섭고, 암병도 무섭고, 교통사고도 무섭고, 또 전쟁도 무섭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무서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할 줄 아는 사람은 양심을 지키며, 사람이 보든지 안보든지 피흘리기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손해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야 있든지 없든지 권세나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사람보기에 무엇같아도 하나님 앞에 믿을 지키고 사람 앞에 신용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 해서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천사보다 더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는 미친 영감쟁이라고 함부로 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쏟아질 때에는 아무리 "좀 살려 주세요" 방주를 두드려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기회 놓치면 망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하는 사람을 천사보다 존경할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자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러러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울려 먹어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손해가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세례 받을 때에, 임직받을 때에, 몸에 병들었을 때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 우러러 보면서 약속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땅 위에서 사람에게 존경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충현교회가, 우리 한국 백성이 모두 다 자신에 대해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살며 생각하며 ◆



26년만에 이룬 서원기도

최현자

(집사, 탁아부 교사, 제5·2교구)

배가 몹시 아파 약을 먹었지만 별 효과없이 정신이 혼미해져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니 30분만 늦게 왔으면 큰 일 날뻔 했다면 서둘러 마취하고 수술하게 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의사가 흔들어 깨우며 이제는 살았으니 안심하란다.

첫째에 나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은 90% 이상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주위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시집은 지 몇 개월만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다니, 나는 화가 나고 약이 올랐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잠을 설치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러나 나를 외면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없어' 하면서 최대의 악인이 되고 싶었고 병실에서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치러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그 음성과 같이 '내가 너 만큼은 버리지 않는다'는 가슴으로 들려오는 급한 소리. 그때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나는 '그래,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셨는가. 만일 지금까지 나 같은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아이 가진 사람이 없다면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를 그런 확신이 생겼다.

문병은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실 거라는 위로의 말을 했지만 주위에서 보고들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기 때문인지 그들의 말이 오히려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들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당신들은 그렇게 시시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지금은 나에게 그런 신앙은 없다. 그때의 신앙이 너무나 부럽다. 뜨뜨미지근한 지금의 신앙을 옛날로 돌리고 싶다. 그런 중에서도 어떤 권사님의 위로와 따뜻한 눈빛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였다.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면서 깊은 밤, 새벽 미명,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부엌 옆에 쪼그리고 앉아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했던 많은 시간들, "3개월 안에 꼭 아이를 주십시오. 주시지 않으면 저는 뛰쳐나가겠습니다. 내성적인 나는 많은 사람들의 동정의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3개월 안에 아이를 주시면 내 평생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알뜰히 살아 모아도 교회 짓기에 모자라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

언해서라도 꼭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를 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서원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해진다.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기도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개월 안에 임신하

여 열 달이 지나 딸을 낳았다. 딸을 주셔도 감사할 것이라고 하던 내가 막상 딸을 낳으니 뻘뻘스럽게도 약간은 섭섭한 생각이 들면서 또 아들을 낳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2년 후에는 아들도 주셨다. 깊은 절망 중에서 딸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 의사들도 행운이라며 매우 기뻐했다.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서원을 갚아야 할 차례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절대로 비싼 옷 안입고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절약해서 내 생전에 꼭 이루기를 바랐다.

내가 서원한 일이지 내 자신을 위하여 쓰는 일에는 최대한 인색하고 또 인색했다. 직장을 따라 부천으로 이사하여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였고 교회건축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씩 저축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다니다 보니 늘 교회의 재정이 모자라 목회비도 못드릴 입장이 되니 건축을 위하여 저축했던 것들을 개척교회에 헌금하게 되었다.

몇 년동안은 재정이 모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부흥하여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한다.

88년부터는 중현교회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는 건축을 위한 저축은 한푼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건축을 위하여 최선

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그마한 옷가게를 했다. 돈버는 재주가 없는 나는 조금씩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직접, 간접으로 얻어지는 모든 수입에 십의 이조를 떼어서 십일조는 교회에 바치고 십일조는 건축을 위하여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절약하고 아껴도 몇 백만원쯤은 넘지 못했다. 참으로 막막했다. 교회를 세우려면 몇 억은 있어야 할텐데. 그런 돈이 과연 내 생전에 모아질까? 그러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돈은 우리나라에서는 번두리에서도 한두푼 값도 채 안되지만 브라질에서는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께 들었다. 너무나 기뻐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루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다. 가끔 건강이 안좋을 때 내 생전에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할까봐 늘 걱정이었는데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니 기쁜 마음 무어라 표현하기 어렵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양적, 질적으로 크게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언제 기회가 되면 직접 방문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싶다. 몇 십 평짜 아파트 구입한 것보다 훨씬 기쁘고 감사한 이 감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다더니 정말 실감한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아들은 12월에 제대하여 이제 복학할 것이다. 착하게 자라준 딸과 아들이 너무나 너무나 고맙다.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은데 별로 재주가 없다. 조금할 수 있는 것이 하모니카와 찬양이다. 때가 되면 교도소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방문하여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칼럼

봄의 길목에서

손경수

(장로, 당회 부서기)

예년에 비해 너무 추웠던 겨울이었다. 오랫동안 한강물이 얼었고, 수온은 늘 영하를 가리켰으며 폭설이 잦아 우리의 작은 가슴이 더욱 움츠러드는 추위를 느끼게 했다. 출다보내 두툼한 옷을 벗어버릴 줄 모르고, 무거운 채로 입고 다녀 보기에조차 둔한 인상을 준다. 난방기가 사후에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겨울이었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겨울도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 얼었던 얼음이 녹고, 겹겹에 쌓였던 의상들을 하나, 둘 벗어던지는 따스한 계절에 왔다.

세계적으로는 3·1 독립만세를 불렀던 계절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이 배움에 열광하고 새학을 시작하는 3월이다.

36년간의 일제치하의 식민지 생활을 견뎌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자주독립을 외치며, 자유의 고를을 걸어치는데 앞장섰고, 만세를 부르다가 수많은 선열들이 죽임을 당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

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만으로 감옥생활과 갖가지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부르짖었던 선각적 전배들의 순교정신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생각하며 참 자유와 기쁨에 애대서 오며, 누가 내려주는 카를 깨닫게 되었고, 해방과 구원의 참 뜻을 음미해 보게 되는 것이다.

새학기에 접어들어 학생들의 꿈은 '대중' 부풀어진다. 진급학교, 상급학교로 진학하며,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들의 이상과 포부는 상아탑 측에 개백이다.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학 입세의 관문에서 좌절을 맛본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이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한련의 실패로 자신의 전로에 대하여 회의한다든지, 비관 낙망 낙오의 벼랑길을 헤매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용기와 굳센 믿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이다.

살아가면서 삶의 절곡, 예측불허한 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신감, 벽을 뚫는 인내를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그물을 기워 바다에 던지는 삶을 생각해 보자.

또 이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이웃과 선배들이 1차 패배한 그들을 향해 힘을 북돋아 주는 일에 너도나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5년에 제 나면 21세기로 진입한다. 예수님에 땅에 호신 제 2천년에 된다. 인류를 구원해 세기 위해 땅에 도생 인센하신 해 내년의 극진한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 하겠다.

이런 차례에 한국교회 의 정신과 목회의 비전, 삶

의 패턴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품관 밑으로 줄줄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봄의 길목에 선 우리들에게 다함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충현만평

TV보다 더 좋은 친구없네 ?

오늘날 내가 네게 보이는 이 프로그램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보도록 하여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내용을 되새길 것이며, 너는 또 리모콘을 손안에 두어 채널을 선택하며, 신문의 방송안내면을 인강에 붙여 표를 참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중매체들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못된 학교교육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어긋난 가정교육 사이에서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가 좋아하던 연예인의 자살 소식을 듣고 나서 아무 말없이 그 뒤를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어린 여학생의 모습이나, 백화점의 속임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겐세일 기간이면 무조건적으로 몰려드는 인파의 흐름은 바로 대중매체의 위력, 특별히 텔레비전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이런 상황에서 텔레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본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로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사악한 것이므로 무조건 없애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아마도 텔레비전이 던져 주고 있는 사회적인 해악성과 개인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텔레비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중매체들은 반드시 제한된 상태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 함으로

여러 가지의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는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현대인의 생활 양식을 따르면 어차피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는 불가피한 존재이므로, 이 텔레비전

이라고 분명히 밝혀 주면서, 오히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서는 좀더 예리한 분별력과 비판력을 가지고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대중매체적인 사명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 책소개 ◆

거듭난 텔레비전

영상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김 동 석

(목사, 청년1부 지도)



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설혹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며, 그보다는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한 시대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나 나아가 그것들의 구체적인 의미까지를 보여 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의 주장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편협한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잘못된 것



IVP, 국판, 310면, 8000원

먼저 저자인 솔츠 박사는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떠난 자유로운 것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땅위를 살아가는 온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할 것을 위임받았고, 더 나아가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중매체들은(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

에게 허락하신 '문화명령'을 성취하게 하려고 허락해 주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책임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솔츠 박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인기가 돈을 벌 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문화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적극적 시청법에 대한 훈련, 시청 원칙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공개 토론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의 방법들은 현재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즉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들이라고 생각된다.

텔레비전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솔츠 박사의 이 <거듭난 텔레비전>이라는 책은 참으로 필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우리 편으로 길들이기 위하여 더욱 많은 기독교 문화의 현장에 나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책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필독하여서, 죄악과 혼돈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세상 속에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소개한다.

1991년 10월에 설립된 군전도회.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주변 사람들을 호뭇하게 하고 있다. 설립 당시 회원이 17명에 불과하던 것이 4년여가 지난 오늘에는 82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그에 걸맞게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군전도회에서는 이에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한 군전도의 사명 완수를 위해 금년에는 회원 1500명 확보를 위해 더 열심히 뛰고 있다.

군전도회는 그 명칭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군의 복음화가 첫째되는 사명이다. 군대는 그 특성상 복무기간이란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인구가 항상 유동적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2년 6개월이란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청년기의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낸다고 생각할 때 군복음화는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전도회는 이를 위해 군교회회를 새로 짓거나 중개축하여 장병들이 하나님

◆ 우리는 지금 / 군전도회를 찾아서 ◆

황금어장으로 함께 나갑시다

17명의 회원에서 800여명으로

위문, 세례식, 부흥회, 교회당 건축 지원 등으로
매달 군부대 방문

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동안 군교회 건축을 지원해준 부대가 35사단, 66연대, 55연대 등 10여곳에 이른다.

또한 매달 진중세례식도 하고 있는데, 신병교육 연대 및 사단, 하사관 및 장교교육부대를 순회하면서 한 달 평균 3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60만 대군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군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헌신한 군복은 모두 300명이고, 우리 교단측 군목은 70명이며 게다가 장기 복무자는 30명에 불과하다. 군전도회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여겨, 이들에게 15명의 군목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목수련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군목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전도용품을 보내 주고 있다.

한편 그동안 조금은 소홀하였던 우리 교회 군입대자들에 대해서도 금년부터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입대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선물로 주고, 더 나아가 군전도회 사무실에 군입대자 현황 기록란을 마련하여 이들을 군목들과 연결시켜주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이처럼 군전도회는 국군장병 복음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군 장병에 대한 전도도 잊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휴전선 부근의 북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군전도회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

화되고 헌신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성구(사 60:1)와 주제찬송 '아침 해가 들을 때' (358장) 아래, 순종(로 6:16), 겸손(눅 17:10), 협력(골 2:2), 기도(골 4:13), 충성(딤후 4:2)이라는 생활 신조인, '우리의 다짐'을 정해 놓고, 군대라는 황금어장에서 만전을 위해 회원들은 기도와 전도와 교육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진중세례식을 위해 22사단을 다녀온 군전도회 회원들은 세례를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장병들을 보니 자신들이 세례받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더욱 감사하였다면서, 더욱 많은 성도들이 군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줄 것과 더 나아가 군전도회에 동참하여 이런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하였다. <중>

